



ISSUE BRIEFING

산재환자 발생추이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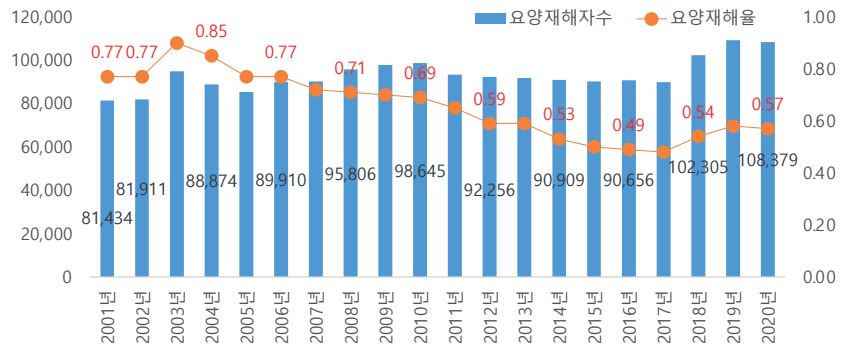
연구책임 이종섭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2022. 10. 07 vol.270

I.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추이

- 산업재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산업재해자는 12.2만 명으로 전년대비 13.2%증가
- 산업재해자는 2001년 81.1만 명에서 2021년 12.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요양재해율은 2001년 0.77명에서 0.57명으로 감소

[그림1] 산업재해자 수 추이



- 산업재해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재해율은 2013년 0.59%에서 2021년 0.63%로 증가하였고, 재해사망자는 2013년 1,929명에서 2021년 2,080명으로 증가
- 업무상 질병자도 2013년 7.6천명에서 2021년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산업재해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재해율	0.59	0.53	0.50	0.49	0.48	0.54	0.58	0.57	0.63
전년대비 재해율 증감율	0.0	-10.2	-5.7	-2.0	-2.0	12.5	7.4	-1.7	10.5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0.69	0.61	0.58	0.57	0.55	0.60	0.64	0.62	0.68
전년대비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증감율	-1.4	-11.6	-4.9	-1.7	-3.5	9.1	6.7	-3.1	9.7
사고성 사망만인율	0.71	0.58	0.53	0.53	0.52	0.51	0.46	0.46	0.43
전년대비 사고사망 만인율 증감율	-2.7	-18.3	-8.6	0.0	-1.9	-1.9	-9.8	0.0	-6.5
사망자수	1,929	1,850	1,810	1,777	1,957	2,142	2,020	2,062	2,080
전년대비 사망자수 증감율	3.5	-4.1	-2.2	-1.8	10.1	9.5	-5.7	2.1	0.9
업무상 질병자수	7,627	7,678	7,919	7,876	9,183	11,473	15,195	15,996	20,435
전년대비 질병자수 증감율	2.1	0.7	3.1	-0.5	16.6	24.9	32.4	5.3	27.8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

산재환자 발생추이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1. 지역별 산재환자 현황 및 추이

- 산업재해의 발생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양재해율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재해 현황을 지역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212만 개소의 근로자는 1,889만 명이고 이중 요양재해자는 10.8만 명으로 전국적으로 요양재해율은 0.57%정도임
- 산업재해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는 전체 사업장 10.1만개의 57.2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도 요양재해자는 3.9천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70%임
- 전라북도의 요양재해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고 광역도에서는 강원 1.12%, 경남 0.77%, 그리고 전남 0.7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요양재해자수	요양재해율
총 계	2,719,308	18,974,513	108,379	0.57
서울	567,201	4,497,217	14,356	0.32
부산	160,090	1,089,623	6,108	0.56
대구	147,692	904,333	5,689	0.63
인천	133,983	956,049	6,015	0.63
광주	93,080	631,044	4,184	0.66
대전	103,485	731,859	4,457	0.61
울산	54,057	464,172	3,319	0.72
강원	94,775	520,343	5,821	1.12
경기	682,655	4,629,348	27,635	0.60
충북	89,186	633,419	4,315	0.68
충남	98,208	750,556	4,692	0.63
경북	106,625	730,684	4,291	0.59
경남	170,634	1,142,502	8,753	0.77
전북	100,897	572,136	3,998	0.70
전남	74,774	493,723	3,539	0.72
제주	41,966	227,505	1,207	0.53



[표2] 지역별 요양재해자 수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

- 근로복지공단의 지방관서별 요양재해자 수를 보면, 전주시의 경우 전체 사업장 9.3만 개소 중 근로자는 33.0만 명이고 이중 요양재해자수는 2.2천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7%정도임

[표3] 지방관서별 요양재해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요양재해자수	요양재해율
소계	310,717	1,924,408	12,928	0.67
광주청	93,080	631,044	4,184	0.66
전주	62,046	330,424	2,216	0.67
익산	18,040	116,636	895	0.77
군산	20,811	125,076	887	0.71
목포	33,335	184,382	1,646	0.89
여수	41,439	309,341	1,893	0.61
제주	41,966	227,505	1,207	0.53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

-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의 요양재해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산, 전주 등의 순임

[표4] 지역별 업무상 사고재해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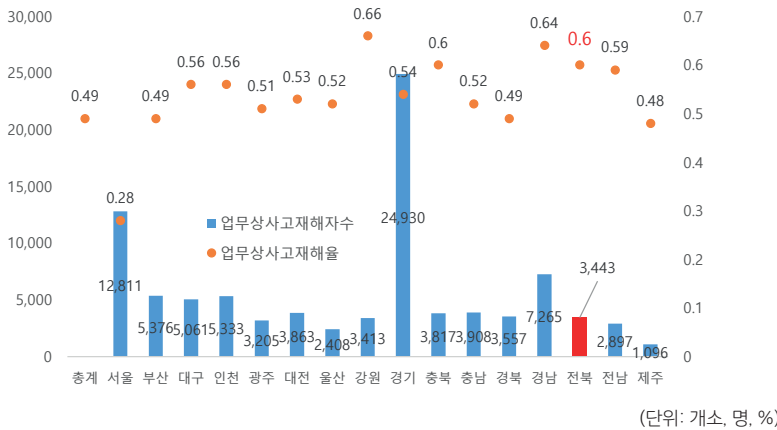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업무상사고 재해율
총계	2,719,308	18,974,513	92,383	0.49
서울	567,201	4,497,217	12,811	0.28
부산	160,090	1,089,623	5,376	0.49
대구	147,692	904,333	5,061	0.56
인천	133,983	956,049	5,333	0.56
광주	93,080	631,044	3,205	0.51
대전	103,485	731,859	3,863	0.53
울산	54,057	464,172	2,408	0.52
강원	94,775	520,343	3,413	0.66
경기	682,655	4,629,348	24,930	0.54
충북	89,186	633,419	3,817	0.6
충남	98,208	750,556	3,908	0.52
경북	106,625	730,684	3,557	0.49
경남	170,634	1,142,502	7,265	0.64
전북	100,897	572,136	3,443	0.6
전남	74,774	493,723	2,897	0.59
제주	41,966	227,505	1,096	0.48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

- 지역별 업무상 사고재해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전체 근로자 57.2만명 중 사고재해자가 3,443명으로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0.60%정도임
- 전라북도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은 전국 평균 업무상 사고재해율인 0.49% 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지청별로도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광주청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임

산재환자 발생추이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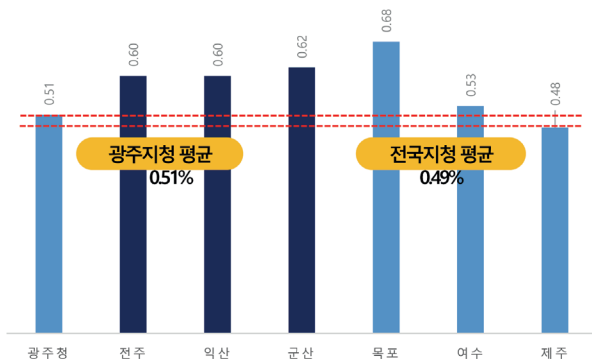
[그림2] 지역별 업무상 사고재해자 현황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업무상사고 재해율
소계	310,717	1,924,408	10,641	0.55
광주청	93,080	631,044	3,205	0.51
전주	62,046	330,424	1,967	0.60
익산	18,040	116,636	703	0.60
군산	20,811	125,076	773	0.62
목포	33,335	184,382	1,257	0.68
여수	41,439	309,341	1,640	0.53
제주	41,966	227,505	1,096	0.48

[표5] 지방관서별 업무상 사고 재해자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재분석

- 지방관서별 업무상 사고재해자 현황을 보면, 전주시의 경우 전체 근로자 33.0만 명 중에서 사고재해자는 1,967명으로 사고재해율은 0.60%정도임
- 익산시의 경우 전체 근로자 11.7만 명 중에서 업무상사고 재해자는 703명으로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전주와 유사한 0.60%정도임
- 군산시는 전체 근로자 12.5만 명 중에서 업무상 재해자는 773명으로 업무상 사고재해율은 0.62%임
- 전라북도 지방관서에서는 군산시의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주와 익산도 광주지청 평균 업무상 사고재해율인 0.51%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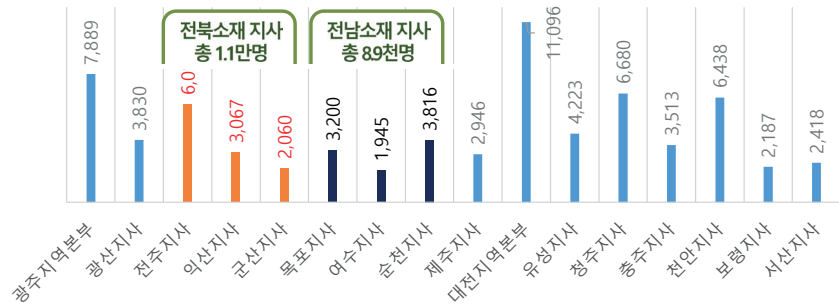


[그림3] 지방관서별 업무상 사고 재해자 현황

II. 산재 환자 및 급여 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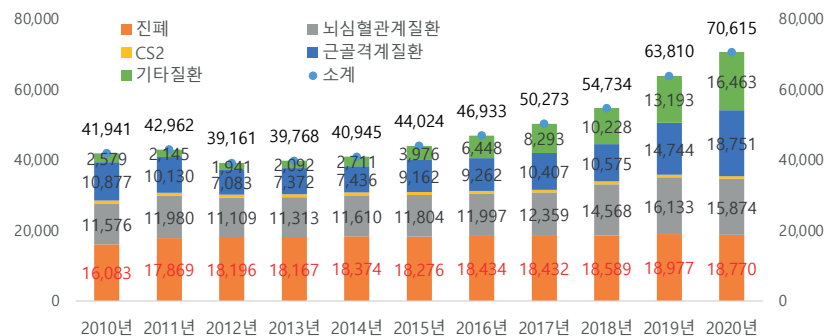
- 산재환자의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관련 요양급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산재환자의 급여수급자는 2001년 14.3만 명에서 2020년 3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함
- 산재환자의 급여 중에서 요양급여 수급자는 2001년 12.3만 명에서 2020년 25.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함
- 전체적으로 보면, 산재환자의 증가는 산재환자의 요양급여를 포함하나 수급자의 증가를 유인함으로써 산재보상급여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

[그림4] 산업재해보상관련(요양급여) 지사별 현황 비교



- 산재보험의 지사별 요양급여 현황을 보면, 광주본부 내에서는 전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순천, 목포, 군산 등의 순임
- 요양급여 현황을 권역별로 보면, 전북소재 지사는 총 1.1만 명 이지만 전남 지사는 8.9천명으로 전북소재 지사의 요양급여 지급액이 더 높은 수준
- 질병사고별 산재보험급여 현황을 보면, 진폐관련 급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 기타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순임
- 전체적으로 보면, 진폐환자는 큰 유동적 변화 없이 꾸준한 반면,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5] 질병사고별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



III. 산재환자 진료 현황 및 추이

1.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현황

-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은 2020년 말 기준 인천병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병원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음
-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은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하여 공단 소속으로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 그리고 2개 케어센터 등을 운영하여 의료와 직업 및 사회재활을 연계한 통합적 산재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명칭	설립일자	운영병상	진료과목	특징	주요기능
인천병원	83. 2. 28	357병상	17개	• 재활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중재활치료센터 운영 • 재활공학연구소와 연계한 종합재활서비스 제공	산재환자 요양전문
안산병원	85. 5. 21	434병상	16개	• 척추전문센터 및 재활전문센터 운영 •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진폐전문병동 운영 • 지역 내 유일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산재 및 진폐환자 요양전문
창원병원	79. 11. 27	267병상	15	• 경남권 최대 규모·최고수준의 재활전문센터 운영 • 지역 내 유일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산재환자 요양전문
대구병원	12. 4. 5	213병상	6	• 대구·경북 지역 최대 규모·최고수준의 재활전문병원 운영 • 재활전문치료센터, 수중재활치료센터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산재환자 요양전문
순천병원	85. 5. 24	295병상	13	• 전남동부권 최고수준의 재활전문센터 운영 • 지역 내 유일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산재 및 진폐환자 요양전문
대전병원	91. 7. 23	294병상	15	• 관절전문센터 및 재활전문센터 운영 • 대전·충남 권역 최초로 산재환자 대상 수부전문 재활치료 도입	산재 및 진폐환자 요양전문
태백병원	77. 6. 2	385병상	14	•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전문 종합병원 • 지역 내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정 기관 • 부설 케어센터 운영(고령 및 중증 진폐장애인 요양서비스)	산재 및 진폐환자 요양전문
동해병원	83. 5. 3	311병상	10	• 강원 영동남부권 최대 재활전문센터 운영 • 진폐전문의료기관 및 지역 내 유일의 공공의료기관	산재 및 진폐환자 요양전문
정선병원	88. 11. 30	169병상	3	• 진폐전문의료기관 • 지역 내 유일의 병원급 공공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지정기관	산재 및 진폐환자 요양전문
경기요양병원	88. 11. 30	160병상	3	• 장기요양 산재환자의 요양서비스 제공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 • 국내 최초 요양병원 인증 획득 • 부설 케어센터 운영(산재장애인 전문복지 및 간병 서비스)	
서울의원	19. 4. 22		1	• 도심권 산재환자 맞춤형 외래 의료·직업·사회 재활 서비스 제공	도심권 산재환자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인천병원 부속 외래재활센터)
대전의원	19. 8. 20		1	• 국내 최초 직업병 예방치료 기능 수행	도심권 산재환자 전문재활서비스 제공 (순천병원 부속 외래재활센터)
광주의원	20. 12. 29		1	• 도심권 산재환자 맞춤형 외래 의료·직업·사회 재활서비스 제공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산재트라우마 치료 등 제공	직업병 예방상담 및 치료 (대전병원 부속 근로자건강센터)

[표6]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현황

자료 : 근로복지공단(2020), 2020 산재보험 산업연보

2.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진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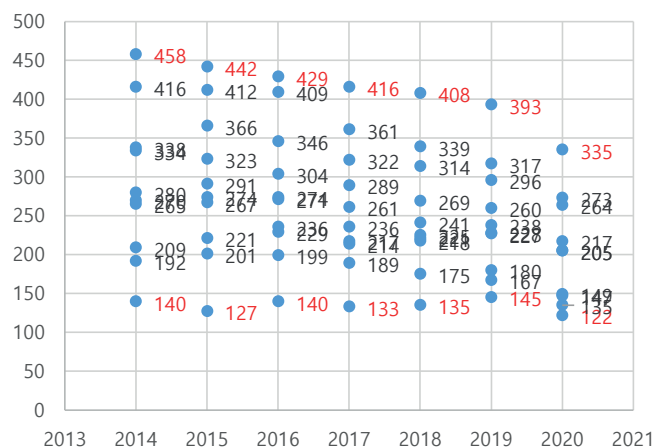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의 산재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입원환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외래환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입원환자는 2014년 1,871명에서 2020년 1,639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1,660명에서 2,357명으로 증가

[표7]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산재 진료현황

병원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인천	284	497	324	518	274	533	297	540	285	577	283	592	271	593
안산	294	247	339	237	342	256	324	263	330	310	310	395	264	395
창원	129	322	138	332	106	299	116	303	144	277	176	321	106	216
대구	60	50	78	54	92	72	93	85	101	117	122	143	87	141
순천	105	71	136	80	121	77	127	80	158	110	172	145	155	137
대전	173	204	190	225	199	284	205	258	167	349	177	382	145	405
태백	339	136	318	159	270	136	254	136	239	148	228	149	188	183
동해	196	85	209	72	201	94	201	92	194	123	187	146	165	192
정선	174	25	186	26	180	27	167	27	148	27	141	30	129	30
경기	117	23	106	9	116	17	123	13	143	11	152	7	129	12
서울의원											0	36	0	51
광주의원													0	2
	1,871	1,660	2,024	1,712	1,901	1,795	1,907	1,797	1,909	2,049	1,948	2,346	1,639	2,357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일평균 입원자는 최소 122명에서 최대 458명이고 일평균 외래진료는 2021년 기준 최소 30명에서 최대 776명임

[그림6]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일평균 진료현황(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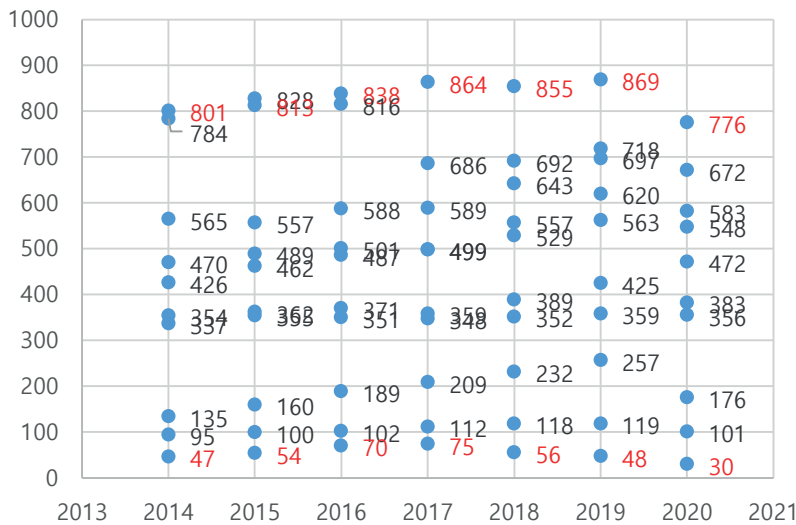


산재환자 발생추이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인천	193,172	214,634	209,509	210,934	207,030	206,240	193,672	189,949	189,816	184,598	184,960	189,952	184,937	193,343	187,618	196,102
안산	167,288	172,201	157,610	143,653	145,186	138,606	139,381	135,290	135,024	137,345	135,079	136,962	115,639	100,887	84,132	74,919
창원	117,526	177,414	169,530	167,276	201,578	202,421	197,840	176,384	179,652	172,767	161,719	157,155	161,394	162,368	160,061	167,913
대구	43,739	63,371	56,899	50,973	46,580	39,846	33,265	27,401	10,246	0	0	0	0	0	0	0
순천	88,561	88,780	86,159	87,683	91,722	90,203	83,168	76,373	98,466	97,789	101,166	103,072	106,190	120,335	122,205	112,984
대전	145,088	153,170	136,511	121,802	123,633	121,729	116,076	117,934	129,550	128,461	127,668	120,809	112,870	111,192	105,973	108,607
태백	136,345	139,165	129,649	121,859	120,314	114,920	105,334	100,450	91,237	88,248	91,636	89,750	83,012	85,006	76,116	75,754
동해	95,364	105,067	95,229	84,865	86,701	88,414	87,471	79,129	80,188	80,309	79,060	77,169	70,751	60,113	44,741	27,594
정선	25,086	29,292	28,973	27,288	25,294	24,967	23,513	25,690	25,047	26,305	31,971	30,904	25,217	23,002	23,541	21,648
경기	7,561	11,844	13,697	18,254	17,403	13,476	11,729	9,031	6,182	3,858	1,320	691	511	713	925	572
서울 의원	7,949	4,1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 의원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 의원	1,131	36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1,028,816	1,159,418	1,083,766	1,034,587	1,065,441	1,040,822	991,449	937,631	945,408	919,680	914,579	906,464	860,521	856,959	805,312	786,093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빅데이터 재분석

- 산재환자의 외래진료실적을 보면, 2005년 외래환자는 78.6만 명에서 2020년에는 102.8만 명으로 증가함
- 특히, 직영병원의 일평균 외래진료도 2014년 660명에서 2020년 2,357명으로 증가함



[표8] 산재병원 환자진료실적 (외래)

[그림7]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일평균 진료현황(외래)

[표9] 산재보험 보상관련 지사별
통계현황

지사명	수급자 요양급여 (명)	지급건 요양급여 (건)	금액 요양급여 (원)	지사명	수급자 요양급여 (명)	지급건 요양급여 (건)	금액 요양급여 (원)
서울지역본부	6,213	40,103	20,205,322,700	경인지역본부	9,776	69,987	35,316,659,690
서울강남지사	4,018	22,613	13,302,524,860	인천북부지사	13,643	87,968	82,164,761,440
서울서초지사	2,480	16,180	6,286,115,630	수원지사	6,102	41,432	21,862,056,890
서울동부지사	7,038	47,979	22,063,875,740	부천시지사	7,498	52,986	26,815,553,760
서울성동지사	1,534	9,524	4,614,274,460	안양지사	6,132	41,496	16,124,272,750
서울서부지사	5,657	45,858	15,597,495,950	안산시지사	13,995	89,763	74,443,210,480
서울남부지사	8,648	61,516	38,741,982,000	성남지사	8,024	55,044	25,248,389,430
서울북부지사	7,833	53,805	23,810,373,940	평택지사	5,609	41,308	17,114,419,190
서울관악지사	7,506	47,405	22,083,360,260	고양지사	6,350	43,657	19,822,341,100
의정부지사	5,731	41,098	17,601,243,190	화성지사	5,820	37,013	21,668,258,810
남양주지사	4,595	39,727	12,955,528,030	용인지사	5,262	35,573	16,343,277,830
춘천시지사	2,794	21,336	7,198,723,270	광주지역본부	7,889	69,914	45,195,120,310
태백지사	4,436	44,241	22,748,211,220	광산지사	3,830	26,814	12,673,438,780
강릉지사	4,944	35,613	29,245,405,010	전주지사	6,016	54,055	23,620,081,480
강원지역본부	3,295	24,307	13,668,093,360	익산지사	3,067	18,915	9,540,760,230
영월지사	2,105	10,311	13,188,968,640	군산지사	2,060	17,895	7,018,068,810
부산지역본부	7,394	58,062	33,314,277,500	목포지사	3,200	28,168	12,844,473,700
부산중부지사	3,197	23,155	12,151,770,930	여수지사	1,945	14,273	7,287,940,260
부산동부지사	6,019	50,463	24,030,354,790	순천시지사	3,816	20,110	33,195,233,660
부산북부지사	5,450	49,253	28,372,782,190	제주지사	2,946	20,556	7,921,736,860
창원지사	10,049	84,058	53,928,130,610	대전지역본부	11,096	93,191	63,785,211,860
울산지사	8,305	123,302	32,750,139,320	유성지사	4,223	31,122	10,991,531,420
양산지사	5,783	46,857	21,670,192,040	청주지사	6,680	51,445	30,435,770,100
진주지사	3,643	28,888	11,073,593,620	충주지사	3,513	24,883	11,371,701,240
통영지사	3,888	51,158	11,443,974,070	천안지사	6,438	49,471	22,247,703,530
김해지사	1,907	13,771	5,749,174,690	보령지사	2,187	15,463	6,751,555,750
대구지역본부	7,395	51,286	27,316,785,450	서산지사	2,418	18,340	6,226,455,030
경산지사	1,791	13,329	4,164,192,340				
대구서부지사	5,646	39,807	19,893,840,640				
대구북부지사	5,126	31,522	26,230,067,750				
포항지사	3,904	34,596	16,416,114,540				
구미지사	2,142	14,380	6,889,334,290				
영주지사	2,065	16,218	16,505,060,020				
안동지사	1,615	10,351	6,569,112,55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해해현황 빅데이터 재분석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지사별 요양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지사는 총 6,016명의 수급자에게 총 5.4만 건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지급된 총 요양급여액은 236억 원 정도임
- 익산지사와 군산지사도 요양급여로 지급된 총 급여액은 95.4억 원 그리고 70.2억 원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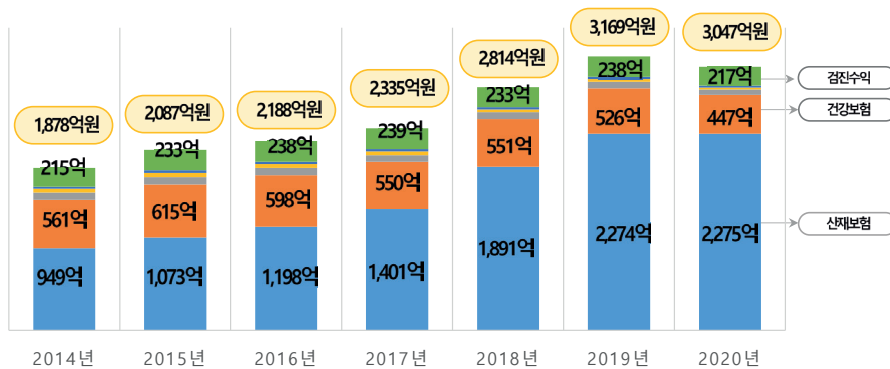
산재환자 발생추이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 건, 원, 명, 일)

지사명	청구건수	청구액	지급 건수	수급 자수	총지급액	총 진료일 수	1인 평균 진료비
합 계	879,272	898,688,335,120	879,272	176,753	895,193,479,240	13,753,083	5,064,658
서울 소계	204,416	187,517,074,370	204,416	43,748	186,859,000,000	2,869,992	4,271,258
부산경남소계	178,377	164,229,203,630	178,377	33,908	163,702,796,670	3,057,560	4,827,852
대구경북소계	82,481	89,911,756,240	82,481	16,660	89,472,315,570	1,267,599	5,370,487
경인소계	219,884	240,157,990,240	219,884	49,899	239,223,709,230	3,407,536	4,794,158
광주전남소계	95,625	111,994,531,320	95,625	20,175	111,544,941,360	1,534,571	5,528,869
광주지역본부	27,774	32,621,494,690	27,774	5,461	32,515,037,710	436,325	5,954,045
광산지사	7,431	7,793,873,520	7,431	2,141	7,749,754,770	133,205	3,619,689
전주지사	19,309	15,276,441,940	19,309	3,793	15,158,565,040	290,113	3,996,458
익산지사	6,933	6,919,244,200	6,933	2,002	6,894,139,200	96,318	3,443,626
군산지사	5,049	4,088,188,590	5,049	1,191	4,068,167,800	95,624	3,415,758
목포지사	7,454	7,511,484,610	7,454	1,819	7,450,476,380	148,644	4,095,919
여수지사	4,683	3,966,959,520	4,683	1,196	3,938,749,730	84,105	3,293,269
순천지사	11,209	29,798,105,900	11,209	3,228	29,762,781,760	162,600	9,220,193
제주지사	5,783	4,018,738,350	5,783	1,717	4,007,268,970	87,637	2,333,878
대전경남 소계	98,489	104,877,779,320	98,489	21,277	104,390,716,410	1,615,825	4,906,27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빅데이터 재분석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지역별 진료비를 보면, 2020년 기준 총 지급 건수는 87.9만 건 이었고, 수급자는 17.6만 명 그리고 청구액은 8,06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06만원임
 - 전주지사의 청구건수는 1.9만 건으로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주지사의 1인당 청구액은 399만 원임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환자수익은 대부분 산재보험에서 발생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검진수익이 차지하고 있음



[표10]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그림8]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급여별 환자수익추이

IV. 전라북도 산재병원 건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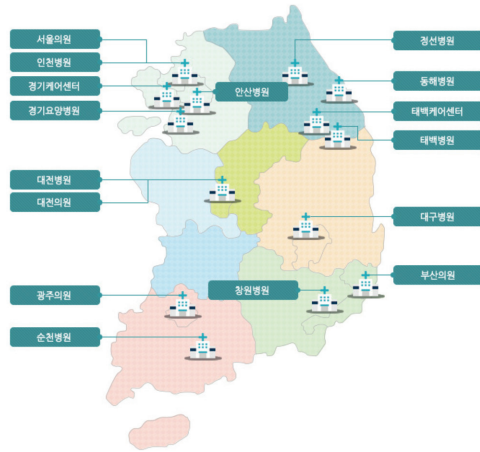
1. 전라북도 산재환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전문 치료·재활수요 대응

- 산업재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에는 산재전문 병원이 없어 산재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재요양환자는 2001년 14.3만 명에서 2020년 35.0만 명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함
- 2020년 기준 전라북도의 요양재해자는 3,998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70%로 전국 평균 요양재해율인 0.57%보다도 높은 수준임
- 특히, 전라북도의 요양재해율은 인접지역인 광주(0.66)와 충남(0.63), 대전(0.51)보다도 높은 수준이지만 산재전문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전문적인 재활치료 미흡
- 인구가 많은 전남보다도 산재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산재환자의 의료 이용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전북은 산재전문병원의 부재로 산재환자의 의료접근성 취약
 - 특히 광주전남권에는 산재전문병원(순천)과 산재전문 재활센터(광주)가 설치되어 있고, 대전에도 산재전문병원(대전), 직업병 예방상담 및 치료센터(대전)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전라북도는 산재전문 의료 및 재활시설 전무
- 또한, 지방관서별 업무상 사고재해율도 전주(0.60)와 익산(0.60), 군산(0.62) 등은 광주관할청 평균(0.51)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라북도 산재요양환자의 증가에 따른 치료 및 재활기관 설치 필요

2. 산재전문 의료기관의 부재에 따른 산재의료안전망 구축

- 산재보험 시설은 일반요양 및 진폐 전문요양시설, 척수손상환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 10개 병원과 3개 의원, 그리고 부설 케어센터 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산재전문 의료시설은 권역별로 전라북도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재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산재의료안전망 구축 필요
- 산재전문병원은 산재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와 함께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적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산재전문병원은 산재의료안전망의 필수 인프라 라고 할 수 있음

산재환자 발생추이와 전라북도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



[그림9]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현황

- 산재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전라북도의 산재환자는 대전병원이나 순천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는 의료접근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산재환자 중 중환자와 특수직업병 환자의 경우 대전이나 서울 등으로 원거리 치료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상황
- 산재병원의 부재로 인해 전라북도의 산재병원 이용률은 10.4%로 전국 평균 산재병원 이용률인 21.4%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
 - 산재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전라북도의 산재환자는 일반병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지역의 산재환자가 산재병원의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재병원 이용률 (입원)	21.4	13.1	3.6	17.4	33.3	1.3	31.8	4.5	22.7	23.8	53.9	8.8	13.0	10.4	18.3	8.5	22.5	10.0
산재병원 이용률 (외래)	6.5	1.5	0.8	5.8	18.9	0.7	21.6	0.6	11.9	6.2	15.6	2.2	3.4	2.2	8.8	2.6	0.0	11.1

[표11]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산재병원) 이용률 현황

- 전라북도는 산재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재환자 중 급성기 환자는공단직영 산재병원인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전라북도 내 산재병원 건립을 통해 지역 산재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마련 필요
- 산재근로자의 완전한 직장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산재전달체계의 핵심인 재활거점 전문병원 운영 필요
- 산재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중심의 지정병원과 달리 아급성기 통합 전문재활 및 진료기관으로서 산재환자의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임
- 전라북도 산재병원 건립을 통해 지정 산재병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재환자의 맞춤형 통합의료재활서비스 제공 필요

3. 농어업 산재환자의 증가와 농업특화 산재병원 필요성 확대

- 산재환자의 업종별 현황에서 농업과 어업 등의 산업의 재해율은 농업 0.85, 어업 1.40 등으로 산재비율이 월등히 높은 광업을 제외하면 농어업 산업재해는 다른 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수준임
- 특히, 2020년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율은 6.0%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 0.6%보다도 농업분야의 재해율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업분야 산재환자의 꾸준한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특화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
 - 농업분야에서는 크게 농기계와 농약 그리고 전기나 화재에 의한 재해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분야에서의 농업재해에 대한 치료나 재활과 함께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현재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주로 산재와 진폐 그리고 요양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어 증가하는 농어업분야 산재전문병원은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산재병원 건립을 통해 산재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어업분야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필요
 - 농업특화 산재병원 건립을 통해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 산재환자의 재해현황, 질환별 유병률 등에 대한 DB구축과 예방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농업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료 전문 인프라 구축
- 전라북도 산재병원은 환자유형, 역할과 기능의 차별화 그리고 치료의 형태를 기존 산재지정병원과 차별화함으로써 보험자 병원으로서 전복에 맞는 산재의료모형 정립
- 전북산재병원은 환자의 특성을 급성기 환자 중심으로 2차 수술과 함께 치료와 재활로 특성화하고 치료의 형태도 경증치료가 아닌 중증치료 전문 기관으로 위상정립
- 산재지정병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재활 서비스 통합 제공기반 구축 필요

Summary

The construction of Jeonbuk Industrial Accident Hospital should establish a medical safety net for local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Jung-seb Lee, Research Fellow

- The number of patients of being cared due to industrial disasters has been more than doubled from 143 thousand in 2001 to 350 thousand in 2020. Also, the number of patients of being cared due to industrial disasters in Jeollabuk-do was about 4,000 as of 2020, which is 0.70%, exceeding the national average of 0.57%.
- In particular, Iksan-si's rate of care caused by industrial disaster is very high at 0.77% and Gunsan-si has the rate of 0.71% which is higher than the average disaster rate of 0.67% of local government offices under the Gwangju District Office.
- Despi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ients of being cared due to industrial disasters in Jeollabuk-do, due to the absence of designated hospital in treating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local patients have to go Daejeon or Seoul to get treatments, adding the economic burden as well as inconvenience.
- In particular, there are hospitals for industrial accidents (Suncheon), its rehabilitation centers (Gwangju), and occupational disease prevention counseling and treatment centers in Daejeon, However, Jeollabuk-do has no industrial accident medical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 The rate of using designated hospital for industrial accidents in Jeollabuk-do is only about 10.4%, due to the absence of it. In fact, it is much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21.4%.
- By the construction of designated hospital for industrial accidents Jeollabuk-do will have professional treatment response capabilities for acute industrial accidents and would enhance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for local industrial accidents patients.
-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disaster rate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y, Industrial Accident Hospital in Jeollabuk-do needs to be built as an agriculture specialized industrial accident hospital that can treat and support rehabilitation of patients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y with higher authentication and expertise.

Key Words Industrial Accidents, industrial injury patients, industrial disaster hospital

ISSUE
BRIEFING 2022. 10. 07 vol.270

The construction of Jeonbuk Industrial Accident Hospital should establish a medical safety net for local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Jung-seb Lee, Research Fellow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